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줄줄이 인상... 자금이탈 막는다

웰컴 '웰컴 주거래통장' 금리 3% 예치금 잔액 1억까지 최대금리
 애규온 '고수익자유예금' 연 2.8% 하루 예치해도 '이자' 유연한 운용
 DB 'DB행복파킹통장' 최대 3.5% 금액별 금리 차등, 소액 혜택 강화



주요 저축은행이 '파킹통장' 금리를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들이 파킹통장 금리를 올리며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고객 자금이탈을 막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격적인 수신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단기 목돈을 굴릴 곳을 찾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파킹통장 금리를 올리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사 파킹통장 상품인 '웰컴 주거래통장'의 최대금리를 기존 연 2.8%에서 연 3.0% (세전)로 인상한다. 최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치 금액 구간도 넓혔다. 시중의 파킹통장이 소액 구간에 한해서만 최대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예치금 잔액 1억원까

지 동일하게 최대금리를 적용한다.

기본 금리는 연 0.8%이며, 우대 금리를 위한 조건은 일상적인 금융 거래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대 조건은 ▲당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 또는 생활비 이체 ▲자동 납부 1건 이상 ▲간편결제 또는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사용 ▲마케팅 동의 등이다.

애규온저축은행 역시 별도 우대 조건 없는 파킹통장인 '고수익자유예금' 금리를 연 0.8%에서 연 2.8% (세전)로 2.0%포인트(p) 인상했다. 업계 내 우대 조건이 없는 파킹통장 상품 중 최고

수준의 금리다.

금액 한도 및 기간 제한은 없으며,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예치 기간 만기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금 입출금이 잦은 고객도 이자 손실 없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DB저축은행은 모바일 거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 최대 3.5%의 금리를 제공하는 'DB행복파킹통장'을 출시했다. 금리는 예치 금액별로 차등 적용되며, 소액 구간 금리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500만원 이하 예치 고객에게는 기본금리 연 2.3%에 우대금리 최대 연 1.2%p를 더해 최대 연 3.5% 금리를 제공한다. 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최고 연 2.7%,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최고 연 2.0%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저축은행들이 파킹통장 금리 경쟁에 나선 것은 계속해서 자금이 증시로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 현상을 막고,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고객 확보의 차원이지만 주식시장까지 고려한 행보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넘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아직 주식시장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고, 단순 고객 확보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시상식에 참석한 하나은행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가 선정하는 '2026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Best Trade Finance Provider in Korea 2026)'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통산 25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무역금융 분야에서 축적된 하나은행의 시장 지배력과 무역금융 관련 상품·서비스 품질, 기술력 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결과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단순히 무역금융 거래 규모의 확대를 넘어, 하나은행이 전문성과 손님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온 결과"라며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무역금융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KB국민은행 GS페이 통장 이용고객 20만명에 간식지원금

KB국민은행은 'KB GS페이(Pay) 통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GS25에서 사용 가능한 'GS ALL 포인트'를 제공하는 간식지원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이벤트 기간 중 'KB GS페이통장' 신규 가입한 고객은 물론 기존에 통장을 보유한 고객도 GS25에서 1000원 이상 GS 페이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경품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0만명에게 차등 지급된다. 이벤트 조건을 먼저 충족한 순서대로 ▲1만 5000명에게는 GS ALL 포인트 3만 포인트 ▲2만 5000명에게는 GS ALL 포인트 2만 포인트 ▲5만명에게는 GS ALL 포인트 1만 포인트 ▲11만명에게는 GS ALL 포인트 5000포인트가 각각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 수위 18일 결론

금융당국, 은행 소명절차 등 늦어져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 관전 포인트



/뉴시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수위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안건은 지난 4일 금융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은행권의 소명절차와 쟁점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일주일 새 안전소위를 세 차례나 열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최종 방향을 잡지 못했다.

안전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추가 소위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심의 과정에서 백테스트 기간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본 반면, 은행들은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금감원은 지난달 3차 제재심의위원회 회를 통해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과징금을 약 20% 낮춘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고민이 깊은 상태다. 일부 개별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패소한 경우가 생기면서 제재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보다 판매사 책임이 과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징금이 낮을 경우 '숨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례회의에서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구체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금융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개발

미래 경쟁력 반영 시스템 적용

신한금융그룹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인 기업 신용평가 방식은 재무 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新)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한금융은 최근 첨단 산업과 혁신 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융 역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은 기존 재무 중심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의 기술력, 사업 모델, 산업 전망 등 미래 경쟁력을 반영한다.

특히 부도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벤처·첨단·혁신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산업과 미래 변화에 대한 '선구안'을 바탕으로 혁신 기업과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대우건설, 건설현장에 'Q-박스' 전면도입

독자개발 범용 DX 솔루션 문서작성 시간 90% 단축

대우건설은 국가연구개발 과제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독자 개발한 범용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Q-박스(BOX)'를 올해부터 신규 건설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Q-박스는 클라우드 및 스마트 기기 기반의 통합 품질관리 솔루션이다. 현장 품질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업무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2024년 개발이 완료돼 2025년 국내 6개 건설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증을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24개 건설 현장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Q-박스의 전면 도입을 통해 현장 품질업무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실시된 실증 시험 결과, 문서작성 시간이 90% 이상 단축됐다. 또한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 활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으며, 비대면 전자결제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직접적인 인건비 절감도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Q-박스는 단순한 솔루션 도입을 넘어 방대한 문서에 갇혀 있던 건설 현장 문화를 혁신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2026년 신규 현장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 건설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